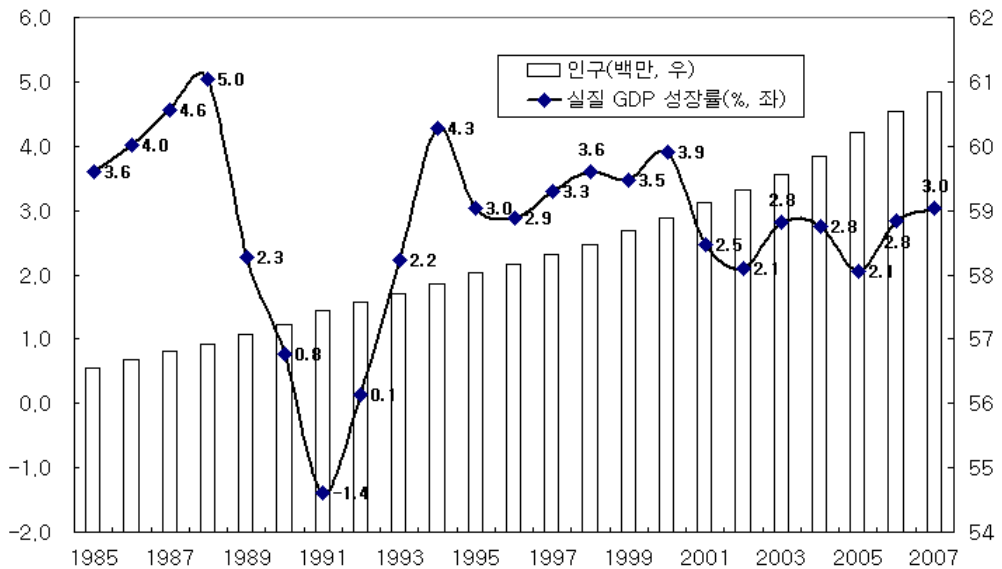


VI. 영 국

- FY 2009-10 : 2009년 4월 ~ 2010년 3월
- 출처 : 『2008 Pre-Budget Report』 (2008. 11), (<http://www.hm-treasury.gov.uk>)
- 환율 : 1파운드 = 약 2,014원 (2008년 평균자료)
- 경제규모(IMF기준) : 2007년 경상GDP 2조 8,044억 달러(우리나라 2.9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비율(명목) : 2007년 기준 61.9%(우리나라 90.4%)
- 지난 10년간의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 2009년은 경제 불황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1991년(-1.4%) 이후 처음으로 -1.25 ~ -0.75%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 2009~10년 영국정부의 순차입규모는(재정수지) 경상 재정수지 악화와 순자본투자의 확대로 1,180억 파운드(GDP대비 8.0%)를 기록
 - GDP대비 공공부문 순국가채무는 경기진작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48.2%를 기록

- ◇ 불황타파를 위해 예산안에 나타난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로 제시됨
 - ① 거시안정성 유지 ② 금융시장 안정 ③ 기업지원 ④ 저소득층 지원
 - ⑤ 공공서비스 질 제고 ⑥ 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는 2009~10년 경상세입 추정치는 5,355억 파운드로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무려 727억 파운드(-12%) 감소한 금액
 - 2009~10년 경상세입의 GDP 대비 비율은 36.2%로 경제가 침체되기 전인 2007~08년과 비교하여 2.3%p 감소

- ◇ 총관리지출(TME) = 연간관리지출(AME) + 부처별 지출한도(DEL)
 - 2009~10년 총관리지출은 6,538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4.9% 증가
 - 연간관리지출은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서 2009~10년 2,608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4.8% 증가
 - 부처별 지출상한액은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서 2009~10년 3,930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5.1% 증가

◇ 경제위기 대응정책

- 주택경기부양정책('08. 9. 2) : 등록·인지세 면제 혜택범위 확대, 10억 파운드 가량의 주택금융 지원 자금 조기 집행
- 1차 금융구제안('08. 10. 13) : 영국 3대 은행(HBOS, Lloyds TSB, RBS)에 대해 370억 파운드(GDP대비 2.5%)의 금융구제안을 발표
- 1차 경기부양책('08. 10. 20) : 공공부문 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40억 파운드 규모(GDP대비 0.3%)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2차 경기부양책('08. 11. 24) : 2008~10년에 걸쳐 부가세 인하, 법인세율 인상 연기, 인프라 투자의 조기 실시 등이 포함된 200억 파운드(약 45조원) 규모(영국 경상GDP의 1.4%)의 2차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 2차 금융구제안('09 1. 19) : 영란은행의 민간자산 매입제도 신설, 장기 유동성 지원제도 개편, 정부의 은행 손실 보상제도, ABS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2차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 (경제성장률) 2009년은 경제 불황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1991년(-1.4%) 이후 처음으로 -1.25~-0.75%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2008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해 0.75%를 기록할 전망
 - 2010년은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2009년에 실시한 재정·통화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해 1.5~2.0%를 기록할 전망
 - 이후 2011년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2.75~3.25%의 성장률을 보이며 금융위기 이

전 평균 성장률 수준으로(2.75%)으로 복귀할 전망

※ 반면, 최근(2월 6일) IMF에서 발표한 G-20국가의 성장률 전망 자료에는 영국의 2009, 2010년 경제전망 수치는 예산안보다 좀 더 비관적인 -2.8%, 0.2%를 전망

- (소비자물가) 2009년은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를 기록할 전망
 -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3.75%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인 2%를 상회
 - 이후 2010년과 201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수준에 이를 전망

<표 VI-1> 영국의 경제전망

경제 전망	실적치		전망치			
	'00~'06평균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질GDP 성장률(%)	2.75	3.00	0.75	-1.25~-0.75	1.50~2.00	2.75~3.25
- 민간소비	2.00	2.00	1.00	-0.75	1.00	1.75
- 민간투자	0.25	1.00	0.00	-1.00	0.25	0.75
- 정부소비 및 투자	0.75	0.50	0.75	0.75	0.25	0.00
- 순무역	-0.25	-0.75	0.00	0.00	0.00	0.00
소비자물가(CPI)	-	2.00	3.75	0.50	2.25	2.00

출처 : 영국『Pre-Budget Report』(2008) Annex A : The economy

□ 재정전망(Fiscal Outlook)

- (재정수지) 2009~10년 영국정부의 순차입규모는(재정수지) 경상재정수지 악화와 순자본투자의 확대로 1,180억 파운드(GDP대비 8.0%)를 기록
 - 2009~10년 경상재정수지는 세입감소와 경기진작을 위한 재량지출 증가에 기인하여 780억 파운드(GDP대비 -5.3%¹⁾)를 기록
 - 이후 매년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여 2013~14년에는 GDP대비 -1.1%를 기록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

1) 2008년 평균환율(2,014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2007년 경상GDP의 17.3%에 해당하는 금액

- 순자본투자는 2009~10년 2.7%까지 확대되었다가 2010~11년 이후부터는 2%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국가채무) 2009~10년 GDP대비 공공부문 순국가채무²⁾는 경기진작 정책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48.2%를 기록

- 이는 금융위기 이전까지 준수되었던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인 40%를 상회하는 수치
- 이후에도 순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14년에는 GDP대비 57.4%를 기록할 전망

<표 VI-2> 영국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

(단위 : 10억 파운드, %)

	Outturn 2007~08	Estimate 2008~09	Projection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Current budget							
Current receipts (A) (Percent of GDP)	547.5 (38.5)	545.5 (38.8)	535 (40.1)	576 (40.6)	621 (39.9)	664 (39.1)	708 (38.4)
Current expenditure (B) (Percent of GDP)	536.4 (37.8)	568.0 (38.8)	594 (40.1)	628 (40.6)	653 (39.9)	679 (39.1)	705 (38.4)
Depreciation (C) (Percent of GDP)	17.8 (1.3)	18.7 (1.3)	20 (1.3)	21 (1.3)	22 (1.3)	23 (1.3)	24 (1.3)
Surplus on current budget (D=A-B-C) (Percent of GDP)	-6.7 (-0.5)	-41.2 (-2.8)	-78 (-5.3)	-73 (-4.7)	-54 (-3.3)	-37 (-2.2)	-21 (-1.1)
Capital budget							
Gross investment (E) (Percent of GDP)	47.7 (3.4)	55.1 (3.8)	60 (4.1)	54 (3.5)	55 (3.3)	56 (3.2)	57 (3.1)
Less depreciation (F) (Percent of GDP)	-17.8 (-1.3)	-18.7 (-1.3)	-20 (-1.3)	-21 (-1.3)	-22 (-1.3)	-23 (-1.3)	-24 (-1.3)
Net investment (G=E+F) (Percent of GDP)	29.9 (2.1)	36.5 (2.5)	40 (2.7)	33 (2.1)	33 (2.0)	33 (1.9)	33 (1.8)
Net borrowing(H=G-D) (Percent of GDP)	36.6 (2.6)	77.6 (5.3)	118 (8.0)	105 (6.8)	87 (5.3)	70 (4.1)	54 (2.9)
Public sector net debt-end year (Percent of GDP)	526.8 (36.3)	602.0 (41.2)	729 (48.2)	842 (52.9)	938 (55.6)	1,020 (57.1)	1,084 (57.4)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8) Annex B : The Public Finance

2) 순채무는 정부부문의 총부채에서 총자산을 제한 것을 의미

2. 예산기조 및 세부내용

세계적인 경제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Facing global challenges : Supporting people through difficult times)이라는 큰 기조아래

① 거시안정성 유지 ② 금융시장 안정 ③ 기업지원 ④ 저소득층 지원 ⑤ 공공서비스 질 제고 ⑥ 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6가지 세부적인 재정목표 제시

가. 거시안정성 유지 (Maintaining Macroeconomic Stability)

-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 부가가치세율을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존 17.5% → 15%로 2.5%p 한시적으로 인하
 - 자본지출(capital spending) 스케줄 조정
 - 2010~11에 계획된 자본지출 예산 30억 파운드를 경제적 위기로 인한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08~09 및 2009~10으로 앞당겨 시행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장기성장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개선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
 -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율 인상
 - 2011년 4월부터 연소득이 150,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0%→45%)
 -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에 제한
 - 2010년 4월부터 연소득이 140,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100,000~140,000 파운드 구간에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을 감액
 - 사회보장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인상

- 경제가 회복되어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 4월부터 0.5% 인상

나. 금융시장 안정 (Financial Markets and Stability)

- 2008년 9월 금융시장의 위기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전체 은행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정부는 조직적인 붕괴를 막고자 다음 정책을 단행
 - 첫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000억 파운드를 은행의 특별 청산계획 (Special Liquidity Scheme)에 투입
 - 둘째, 지급불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억 파운드를 은행 자본재구성기금 (Bank Recapitalization Fund)에 투입
 - 셋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를 도입
-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으로 다음을 계획하고 있음
 - 폭넓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기업 및 가계에 적정한 수준의 대출 심사 등 금융시스템 감시
 - 금융당국의 은행 그룹지주회사 상대능력 강화 및 투자회사의 지급능력 향상을 위해 은행어음 강화
 - 지분자본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도입

다. 기업지원(Supporting Business)

- 금융시장 안정정책과 더불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단기적으로 다음의 정책을 추진
 - 신용경색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소기업 재정계획(Small Business Finance Scheme)을 통해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해 10억 파운드의 은행대출 지원

- 기업부채의 지분(equity)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5,000만 파운드의 자금 지원
 - 2,500만 파운드의 지역 대부자금 지원
 - 국세청 기업 납세지원서비스(Business Payment Support Service) 도입
 -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급계획에 따른 세금납부 허용
 - 결손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완화
 - 50,000 파운드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 확대(1년→3년)
 - 계획된 세법개정 중 일부를 조정
 -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율 인상(21%→22%)의 적용시점을 연기
 - 비행기세(per-plane tax)를 유지하는 대신 비행기승객세(air passenger duty)를 개정
-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계획
- 대기업 및 중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배당 면세제도의 도입 등 국외이익에 대한 과세 조정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ies)에 대한 반조세회피 규정을 영토적 접근법(territorial approach)에 따라 검토
 - 중소기업의 정부계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
 - 20,000 파운드를 넘는 모든 정부 계약에 대해 온라인 포털을 이용토록 함
 -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 지방당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라. 저소득층 지원 (Helping People Fairly)

□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 2008년 5월에 발표한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600 파운드)을 영구화하고, 추가적으로 130 파운드 더 인상
 - 이로써 기본세율 구간의 납세자(basic rate taxpayers)는 2009~10년에 한 해당 145 파운드의 세금을 절감하게 됨
- 4월에 예정되었던 자녀양육비보조금(child benefit) 인상을 1월로 앞당기며, 이로써 가정에 평균 22 파운드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
 - 보조금 지급액은 자녀가 하나이거나 첫째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당 20 파운드, 둘째 자녀부터는 주당 13.2 파운드임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자녀당 공제금액을 2009년 4월부터 물가지수가 조정된 공제금액보다 75 파운드를 더 인상
 - 이는 2010년 4월에 예정된 공제금액 인상분 25 파운드가 추가된 금액임
- 새해에 모든 연금수령자에 대해 60 파운드를 지급
 - 이는 4월에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분을 1월로 앞당긴 것임

□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계를 지원하는 정책

- 대출 심사원단(Lending Panel)을 도입하여 가계 및 기업 대출 심사를 개선
- 어려움에 처한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를 담보구제(mortgage rescue) 및 담보이자 제도(Mortgage Interest scheme)를 통해 지원
- 주택소유자가 체납하는 경우 적어도 3개월 내에는 회수절차를 취하지 않도록 함
- 정부 자금조달을 통해 무료 부채 상담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3억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투입

- 국가 고용 파트너십(National Employment Partnership)을 통해 정부 및 고용주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소규모 및 대규모 실업을 대상으로 한 즉각 대응 서비스(Rapid Response Service) 확대 및 단기 실업에 초점을 둔 지역 고용 파트너십(Local Employment Partnership) 확대

마. 공공서비스 질 개선 (Improving Public Services)

- 불황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투자에 초점
 - 2010~11 회계연도에 잡힌 공동투자 예산 30억 파운드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 개선, 공영주택 건설, 학교시설 보수 등에 긴급 투입
 - 실업자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Jobcenter Plus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담보이자제도(Mortgage Interest Scheme)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을 위한 소기업 금융제도(Small Business Finance Scheme) 도입

바. 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Delivering on Environmental Goals)

- 저탄소 성장지원 등 장기적인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 저탄소 성장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에너지효율 사업, 철도교통 등에 자본지출 중 5.35억 파운드를 투입
 - 2012년부터 EU 배출가스 거래제도(EU Emissions Trading Scheme)에 비행기를 포함하고 2008년 11월 19일 탄소경매 실시
- 또한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환경정책을 다음과 같이 수정
 - 신규차량에 대해 연료 효율을 반영하여 자동차 소비세(vehicle excise duty) 부과

- 단, 2009년 모든 차량에 대해 세율인상폭을 5 파운드 이하로 줄임
- 그리고 2010년 이후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폭을 최대 90 파운드에서 30 파운드로 축소
- 68억 파운드의 주택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통해 600,000개의 단열재 설치
 - 이 중 절반은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
 - 동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한 해당 300 파운드의 가계 에너지비용이 절감되고 및 탄소방출량 역시 감소될 것으로 기대

3. 예산 수입 · 지출의 주요 내용

가. 예산수입 내용

□ 2008~09년

- 2009~10년 사전예산안에 나타난 2008~09년 경상세입 추정치는 5,455억 파운드로 이는 2008년 하반기 경제침체로 인한 세입여건 악화로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298억 파운드 감소한 금액
 - 사회보장기여금(NICs)과 소득세(income tax)는 노동시장 침체와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해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104억 파운드 감소
 - 법인세(corporation tax)는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금융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해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64억 파운드 감소
 - 인지세(stamp duties)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 감소와 증권거래세 감소로 인해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52억 파운드 감소, 이는 2007~08년 인지세액에 37%에 해당하는 금액

□ 2009~10년

-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는 2009~10년 경상세입 추정치는 5,355억 파운드로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무려 727억 파운드(-12%) 감소한 금액
 - 727억 파운드는 2007~08 경상세입액에 13.3%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income tax)는 노동시장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무려 199억 파운드 감소, 이는 2007~08년 소득세액에 13%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value add tax)는 실질구매력 악화에 소비감소로 이어져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163억 파운드 감소, 이는 2007~08년 부가가치세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
 - 또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2009년 12월까지 17.5%에서 15%로 인하한 것도 부가가치세액 감소에 기인
 - 법인세(stamp duties)도 경기침체 심화로 인해 2008~09년 예산 전망치보다 139억 파운드 감소, 이는 2007~08년 법인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표 VI-3> 경상세입액

(단위 : 10억 파운드)

	£ billion			Changes since Budget 2008 (£ billion)		
	Outturn	Estimate	Projection	Outturn	Estimate	Projection
	2007-08	2008-09	2009-10	2007-08	2008-09	2009-10
HM Revenue and Customs						
Income tax (gross of tax credits)	151.9	156.7	151.2	-3.7	-3.5	-19.9
Income tax credits	-4.4	-5.5	-6.0	0.2	-0.3	-0.5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100.4	97.7	100.8	3.0	-6.9	-7.1
Value added tax	80.6	82.6	72.6	0.1	-1.2	-16.3
Corporation tax ¹	46.9	45.5	42.4	-0.1	-6.4	-13.9
Corporation tax credits ²	-0.6	-0.6	-0.7	0.0	0.0	0.0
Petroleum revenue tax	1.7	2.6	1.5	0.0	0.9	-0.3
Fuel duties	24.9	25.1	26.2	0.0	-0.7	-0.9
Capital gains tax	5.3	4.9	2.4	0.5	-0.1	-1.8
Inheritance tax	3.8	3.1	2.4	-0.1	-0.1	-0.7
Stamp duties	14.1	8.3	6.9	-0.2	-5.2	-8.3
Tobacco duties	8.1	8.2	8.2	0.0	0.6	0.4
Spirits duties	2.4	2.3	2.5	0.1	0.0	0.2
Wine duties	2.6	2.8	2.9	0.1	-0.2	-0.2
Beer and cider duties	3.3	3.4	3.3	0.0	-0.1	-0.3
Betting and gaming duties	1.5	1.5	1.4	0.0	0.0	0.0
Air passenger duty	2.0	1.9	1.9	0.0	-0.1	-0.5
Insurance premium tax	2.3	2.3	2.5	0.0	-0.1	0.0
Landfill tax	0.9	0.9	1.2	0.0	-0.2	-0.1
Climate change levy	0.7	0.7	0.7	0.0	0.0	0.0
Aggregates levy	0.3	0.4	0.3	0.0	-0.1	-0.1
Customs duties and levies	2.5	2.6	2.8	0.0	0.1	0.2
Total HMRC	451.2	447.1	427.5	0.0	-23.4	-69.9
Vehicle excise duties	5.4	5.8	6.0	-0.2	-0.4	-1.1
Business rates	21.4	23.5	24.6	-0.4	-0.3	-0.2
Council tax ³	23.2	24.6	25.7	-0.5	-0.3	-0.4
Other taxes and royalties ⁴	14.6	15.7	15.9	-0.1	-0.1	-0.9
Net taxes and NICs⁵	515.9	516.6	499.6	-1.2	-24.4	-72.5
Accruals adjustments on taxes	1.0	-3.1	2.5	-0.4	-5.1	0.0
Less own resources contribution to EC budget	-5.0	-4.3	-4.8	0.0	0.4	0.2
Less PC corporation tax payments	-0.3	-0.2	-0.2	-0.1	0.0	0.0
Tax credits adjustment ⁶	0.6	0.7	0.7	0.0	0.0	0.0
Interest and dividends	8.3	7.7	8.1	0.4	0.7	1.1
Other receipts ⁷	27.0	28.0	29.5	-1.1	-1.4	-1.6
Current receipts	547.5	545.5	535.5	-2.4	-29.8	-72.7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7.12.05)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경상세입의 GDP대비 비율 및 향후 전망

- 2009~10년 경상세입의 GDP 대비 비율은 36.2%로 경제가 침체되기 전인 2007~08년과 비교하여 2.3%p 감소
 - 이는 주로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제인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세입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
 - 부가가치세는 소비의 감소와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부가가치세율의 인하로 인해 2007~08년 대비 0.8%p 감소할 전망
- 이후 경제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3~14년 경상세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07~08년 수준과 비슷한 38.6%를 기록할 전망
 - 2010~11년은 경기회복의 초년으로서 경상세입의 GDP 대비 비율이 2009~10년 대비 1.0%p 증가한 37.2%를 기록할 전망
 - 2011~12, 2012~13년 경상세입의 GDP 대비 비율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

<표 VI-4> 경상세입의 GDP 대비 비율

(단위 : %)

	Per cent of GDP						
	Outturn	Estimate	Projections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Income tax (gross of tax credits)	10.7	10.7	10.2	10.5	10.8	11.1	11.3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7.1	6.7	6.8	6.8	7.0	7.1	7.2
Non-North Sea corporation tax ¹	2.9	2.4	2.4	2.5	2.5	2.6	2.7
Tax credits ²	-0.4	-0.4	-0.5	-0.4	-0.4	-0.4	-0.4
North Sea revenues ³	0.5	0.9	0.6	0.6	0.5	0.5	0.4
Value added tax	5.7	5.6	4.9	5.5	5.5	5.4	5.4
Excise duties ⁴	2.9	2.8	2.9	2.9	2.8	2.8	2.7
Other taxes and royalties ⁵	6.9	6.6	6.4	6.5	6.6	6.7	6.7
Net taxes and NICs⁶	36.3	35.3	33.8	34.8	35.4	35.7	36.0
Accruals adjustments on taxes	0.1	-0.2	0.2	0.2	0.2	0.3	0.2
Less EU transfers	-0.4	-0.3	-0.3	-0.3	-0.3	-0.3	-0.3
Other receipts ⁷	2.5	2.5	2.6	2.6	2.7	2.7	2.7
Current receipts	38.5	37.3	36.2	37.2	37.9	38.3	38.6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8) Annex B : The Public Finance

나. 예산지출 내용

- 영국의 총관리지출(TME)은 연간관리지출(AME)과 부처별 지출한도(DEL)의 합으로 이루어짐
 -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 DEL은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서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 2009~10년 총관리지출액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6,538억 파운드 기록
 - 연간관리지출액은 2,608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4.8% 증가
 - 경상지출 2,545억 파운드, 자본지출 63억 파운드
 - 부처별 지출한도액은 3,930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5.1% 증가
 - 경상지출 3,392억 파운드, 자본지출 538억 파운드

- 2009~10년 연간관리지출(AME)의 주요 내역 (<표 VI-5 참조>)
 -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benefits)
 -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급여 등의 증가로 2009~10년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은 전년대비 7% 증가한 1,596억 파운드 기록
 - 이후 경제가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0~11년 증가율 2.8%로 하락
 - 세액공제(Tax credits)
 - 경제침체로 인한 실질소득의 악화로 인해 아동과 근로공제 세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5.6% 증가한 206억 파운드 기록
 - 2010~11년 지출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204억 파운드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이 -1.0%를 기록
 - EU 부담금(Net expenditure transfers to EC institutions)
 - 영국 GNI를 베이스로 산출되는 EU 부담금은 2009~10년 53억 파운드로 전년(38억 파운드)보다 15억 파운드 증가

○ 중앙정부 국채이자비용(Central government gross debt interest)

- 기준금리의 대폭 인하로(1.5%) 인해 2009~10년 국채이자비용이 266억 파운드
전년대비 13.6% 하락, 그러나 이 하락폭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해 상당부분 하
락효과가 상쇄된 수치임

<표 VI-5> 총관리지출액(Total Managed Expenditure)

(단위 : 10억 파운드)

	£ billion			
	Outturn 2007-08	Estimate 2008-09	Projections 2009-10 2010-11	
CURRENT EXPENDITURE				
Resource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310.0	325.3	339.2	350.0
<i>of which:</i>				
Near-cash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288.7	304.4	317.3	326.5
Non-cash	21.4	20.9	21.9	23.5
Resourc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226.3	242.6	254.5	278.2
<i>of which:</i>				
Social security benefits ¹	138.8	149.2	159.6	164.0
Tax credits ¹	17.1	19.5	20.6	20.4
Net public service pensions ²	2.3	2.9	3.8	3.9
National Lottery	0.9	1.0	0.8	0.8
BBC domestic services	3.3	3.5	3.6	3.7
Other departmental expenditure	2.6	2.1	2.2	1.6
Net expenditure transfers to EC institutions ³	5.4	3.8	5.3	7.1
Locally-financed expenditure ⁴	24.4	26.1	26.8	28.3
Central government gross debt interest	29.9	30.8	26.6	40.0
AME margin	0.0	0.0	0.9	1.8
Accounting adjustments	1.6	3.8	4.4	6.4
Public sector current expenditure	536.4	568.0	593.7	628.2
CAPITAL EXPENDITURE				
Capita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44.1	48.8	53.8	50.1
Capital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3.6	6.3	6.3	3.5
<i>of which:</i>				
National Lottery	0.8	0.7	0.9	0.8
Locally-financed expenditure ⁴	3.6	5.3	4.6	3.5
Public corporations' own-financed capital expenditure	5.9	6.4	7.1	6.0
Other capital expenditure	-1.2	-0.4	0.5	0.6
AME margin	0.0	0.0	0.1	0.2
Accounting adjustments	-5.4	-5.6	-6.8	-7.6
Public sector gross investment	47.7	55.1	60.1	53.6
Less public sector depreciation	-17.8	-18.7	-19.7	-20.9
Public sector net investment	29.9	36.5	40.4	32.7
TOTAL MANAGED EXPENDITURE⁵	584.1	623.1	653.8	681.8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8.12)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2009~10년 주요 부처별 지출한도액(DEL) (<표 VI-6 참조>)

○ Department of Health

- DoH는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09~10년 지출한도액이 990억 파운드 규모가 가장 큼
- 주요 지출 분야는 공공 의료서비스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인프라의 보수 및 지방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이 있음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DCSF는 취학전·후 아이들과 가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2009~10년 지출한도액은 492억 파운드를 기록
- 주요 지출 분야는 초등학교 인성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취학전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사 증원 등이 있음

○ Department of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 DIUS는 고등교육 및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영국의 장기 성장력 확충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09~10년 지출한도액은 172억 파운드를 기록
- 주요 지출 분야는 영국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투자, 고등교육 질 개선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이 있음

<표 VI-6> 부처별 지출한도액

(단위 : 10억 파운드)

	Outturn	Estimate	Plans	
	2007-08	2008-09	2009-10	2010-11
Resource DEL¹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44.9	46.9	49.2	51.9
Health	88.4	94.0	99.9	106.3
of which: NHS England	86.4	92.5	98.3	104.6
Transport	6.8	6.4	6.4	6.6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15.5	16.4	17.2	18.2
CLG Communities	4.2	4.4	4.5	4.6
CLG Local Government	22.8	24.7	25.6	26.4
Home Office	8.5	9.0	9.4	9.6
Justice	8.8	9.5	9.4	9.4
Law Officers' Departments	0.7	0.7	0.7	0.7
Defence	35.8	37.3	35.2	36.7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1.9	2.0	1.6	1.6
International Development	4.5	4.9	5.5	6.4
Energy and Climate Change	0.6	0.9	1.0	1.1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1.8	1.6	1.5	1.4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7	2.7	2.8	2.8
Culture, Media and Sport	1.6	1.6	1.7	1.8
Work and Pensions	8.1	8.0	8.2	7.9
Scotland	23.8	24.6	25.4	26.5
Wales	12.3	13.0	13.5	14.2
Northern Ireland Executive	7.7	8.1	8.4	8.8
Northern Ireland Office	1.3	1.2	1.2	1.2
Chancellor's Departments	4.8	4.8	4.6	4.5
Cabinet Office	1.8	2.1	2.2	2.4
Independent Bodies	0.8	0.9	0.8	0.9
Moderisation Funding	0.0	0.4	0.4	0.1
Reserve	0.0	0.5	2.8	2.9
Allowance for shortfall	0.0	-1.2	0.0	0.0
Additional Value for Money savings	0.0	0.0	0.0	-5.0
Total resource DEL	310.0	325.3	339.2	350.0
Capital DEL^{1,2}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5.2	6.0	7.2	6.8
Health	3.8	4.7	5.6	4.8
of which: NHS England	3.6	4.6	5.4	4.7
Transport	7.1	7.3	8.3	7.4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2.1	2.2	2.5	1.8
CLG Communities	6.1	7.4	8.4	6.0
CLG Local Government	0.0	0.2	0.1	0.1
Home Office	0.7	0.9	0.8	0.8
Justice	0.8	0.9	0.8	0.7
Law Officers' Departments	0.0	0.0	0.0	0.0
Defence	7.9	8.0	8.2	8.9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0.2	0.2	0.2	0.2
International Development	0.7	0.9	1.4	1.6
Energy and Climate Change	1.5	1.7	1.7	1.8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0.0	0.0	0.0	0.0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0.6	0.6	0.7	0.6
Culture, Media and Sport	0.5	1.0	0.4	0.6
Work and Pensions	0.1	0.1	0.1	0.1
Scotland	3.6	3.3	3.3	3.5
Wales	1.5	1.6	1.7	1.8
Northern Ireland Executive	1.0	1.0	1.1	1.1
Northern Ireland Office	0.0	0.1	0.1	0.1
Chancellor's Departments	0.3	0.3	0.3	0.3
Cabinet Office	0.3	0.4	0.4	0.4
Independent Bodies	0.1	0.1	0.1	0.0
Reserve	0.0	0.8	0.6	0.8
Allowance for shortfall	0.0	-0.6	0.0	0.0
Total capital DEL	44.1	48.8	53.8	50.1
Depreciation	10.7	12.0	12.3	13.3
Tota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343.5	362.1	380.6	386.8
Total Education spending³	77.8	83.0	87.7	90.4

4. 경제위기 대응정책

가. 2008년

□ (주택경기부양정책, 9월 2일) 주택 구입시 등록 인지세(Stamp duty) 면제 범위 확대 및 주택금융 지원 자금의 조기 집행 등의 부양대책을 발표

○ 종전 125,000 파운드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등록 인지세 면제 혜택을 향후 1년간 175,000 파운드 이하 주택까지 확대

주택경기부양대책 발표 전		주택경기부양대책 발표 후('09년 9월2일까지)	
적용구간	세율	적용구간	세율
~ 125,000	0%	~175,000	0%
125,001 ~ 250,000	1%	175,001 ~ 250,000	1%
250,001 ~ 500,000	3%	250,001 ~ 500,000	3%
500,001 ~	4%	500,001 ~	4%

○ 주택금융 지원 자금은 총 1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3억 파운드는 생애 최초 구입자용으로 지원되고, 2억 파운드는 주택압류 대상자, 4억 파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

□ (1차 금융구제안, 10월 13일) 영국 3대 은행(HBOS, Lloyds TSB, RBS)에 대해 370억 파운드(GDP대비 2.5%)의 금융구제안을 발표

○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과 헬리팩스뱅크(HBOS)의 대규모 지분 인수를 통해 이들 은행을 국유화할 방침

□ (1차 경기부양책발표, 10월 20일)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공공부문 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40억 파운드 규모(GDP대비 0.3%)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재무부는 주택 및 에너지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건설사업에 정부 지출 우선권을 두어 재정을 투입하고자 함
 - 경기부양책에 대한 재원은 '10~'11년 예산을 미리 앞당겨 시행할 방침
- (2차 경기부양책발표, 11월 24일) 2008~10년에 걸쳐 부가세 인하, 법인세율 인상 연기, 인프라 투자의 조기 실시 등이 포함된 200억 파운드(약 45조원) 규모(영국 경상 GDP의 1.4%)의 2차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 가계소비 진작을 위해 부가세를 금년 12월부터 2009년말까지 현 17.5%에서 15%로 인하
 - 고용절차 간소화,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실업자의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20대 대기업으로 구성된 국가고용협의체(National Employment Partnership, 의장: 총리)를 신설
 - 2009년 4월 시행예정인 소기업의 법인세율 인상(21% → 22%) 시기를 1년간 연기하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의 세금납부 시한도 6개월간 연기
 - 도로·주택·학교건물 등에 대한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시행(2010년 → 2008~9년)
- (세율인상, 11월 24일) 한편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선별적인 세율 인상정책을 병행하여 수립
- 휘발유·주류·담배 세율을 인상하고 전체 소득계층의 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연간 소득 15만 파운드 초과)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별도로 부과*
 - * 이 정책은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1년 4월부터 적용되어, 소득세율이 현행 20%·40% → 20%·40%·45%로 변경
 - 2010년 4월부터 소득규모에 따라 개인소득세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에 제한
 - * 연소득이 140,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100,000~140,000 구간에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액을 감액
 - 사회보장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인상

* 경제가 회복되어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 4월부터 0.5% 인상

□ (금리인하)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0월 이후 BoE는 기준금리를 총 4회에 걸쳐 3.5%p 인하(현행 1.5%)하여 기준금리는 1694년 은행 설립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

변경일자	기준금리
2008년 1월 10일	5.50%
2008년 2월 7일	5.25%
2008년 4월 10일	5.00%
2008년 10월 8일	4.50%
2008년 11월 6일	3.00%
2008년 12월 4일	2.00%
2009년 1월 8일	1.50%

나. 2009년

□ (2차 금융구제안, 1월 19일) 지난해 10월 370억 파운드 규모의 1차 금융구제안을 내놓았던 영국 정부는 2차 금융구제안을 발표

○ 영란은행의 민간자산 매입제도(Asset purchase facility) 신설

- 매입규모는 500억 파운드 이내이며 매입대상 자산은 CGS³⁾(Credit Guarantee Scheme)에 의해 정부가 지급보증한 은행채, 회사채, CP, 신디케이트론, 일정한 조건의 ABS 등임

○ 영란은행의 장기 유동성 지원제도(Liquidity facilities) 개편

- 지난해 4월 21일부터 시행중인 특별유동성 공급제도(special liquidity scheme⁴⁾)

3) 정부가 은행 및 건축대부조합의 신규 중·단기 발행채(파운드화, 유로화 및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

4) 은행이 보유한 유동성이 낮은 채권을 국채 등으로 스왑해 주는 제도로서 스왑기간은 1년(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를 당초 계획대로 1월 30일 종료하고, 대신 현행 할인제도(discount window facility⁵⁾)를 활용하여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 지원

○ 정부의 은행자산 보호제도(Asset protection scheme) 신설

- 재무부가 개별은행과 협의하여 은행 보유 자산의 예상손실 규모를 추정, 향후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며 해당 은행은 수수료를 지급
 - 1차 총손실의 90%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 10%는 개별 참가은행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참가은행이 발행한 증권(우선주 이외도 가능), 현금 등으로 지급
 - 대상자산은 가계대출 및 주택자금대출채권, ABS 등 구조화 증권, 기업대출채권, 2008년말 현재 보유중인 헤지목적 자산 등(표시통화 제한 없음)
 - 대상기관은 대상자산 규모가 250억 파운드 이상인 금융기관(외은지점 포함), 기타 재무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임
 - 참가 금융기관은 국제기준에 따라 자산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재무부는 참가 금융기관과 대출 확대 등 보상조건을 약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의회에도 제출)
 - 손실보상기간은 대상자산의 만기까지(최대 5년 이내)이며, 2009년 2월말까지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

○ ABS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신설

- 정부는 모기지대출, 기업 및 가계 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AAA 등급)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보증
 - 대상 금융기관은 영국의 관련법에 의해 설립되어 영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및 건축대부조합
 - 수혜기관은 증권의 인수, 공시, 보고, 평가 등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09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

○ 은행채 등의 지급보증제도 시한 연장

5) 금융기관 보유 적격증권을 담보로 영란은행 보유 국채를 대여해 주고 금융기관은 영란은행의 공개시장조작에 참여하거나 시장에서 RP 방식으로 자금조달

- 은행 및 건축대부조합이 신규 발행하는 중·단기채에 대한 지급보증제도의 시한을 당초 4. 9일에서 2009년 말까지 연장
- RBS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정부가 보유중인 Royal Bank of Scotland(RBS)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 자본금이 증가하여 1년 동안 기업 및 가계에 60억 파운드의 추가대출이 가능